

□ 조세부담

- 법인 소득세의 경우 인도네시아(10-30%), 홍콩(17.5%) 등이 낮은 반면 중국(33%)과 인도(31.5%) 등은 높은 수준이었음.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였으나 중국(17%), 인도(16%)는 이보다 높았고 홍콩(0%), 대만(5%) 등은 낮았음.
- 베트남은 법인 소득세 25%, 부가가치세 10%로 세부담 측면에서도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 주요 투자대상국의 투자비용 비교 >

	임금(US\$)			운영비(US\$)				조세부담(%)	
	공장 근로자	중견 기술자	중간 관리직	사무실 임차료	주택 임차료	전화료	전기료	법인세	부가세
베트남	99	262	542	24.0	1,675	0.01	0.06	25	10
한국	1,340	1,467	2,269	39.7	1,776	0.01	0.04	27	10
중국	109	194	848	45.0	3,700	0.03	0.06	33	17
홍콩	1,934	2,305	3,716	26.5	2,320	-	0.14	17.5	-
대만	1,078	1,433	2,462	24.2	1,777	0.01	0.05	25	5
태국	184	327	790	11.0	1,630	0.08	0.04	30	7
말련	202	684	1,892	13.8	737	0.01	0.05	28	5-25
인니	133	229	608	17.0	2,300	0.01	0.05	10-30	10
필리핀	170	255	619	5.9	1,176	-	0.09	32	10
인도	144	352	963	20.5	1,655	0.01	6.1	31.5	16

(주 : 각국 수도 기준, 사무실 임차료는 평방미터당 가격, 전화료는 시내통화 1 분당 가격, 전기료는 산업용 kWh 당 가격)

(문의처 : 해외조사팀 홍희 ktcdxb@hanmail.net)

구주지역

■ EU 신규가입국 기업진출 여건 비교

- 오는 5월 1일 EU 확대를 계기로 서구 기업을 비롯한 세계 우수기업의 동구 진출 러시가 예상되며, 동구는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EU 신규가입국간 투자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둘러싸고 올 초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격전을 치른 후에도 양국은 월풀(Whirlpool) 투자 유치를 위해 다시 경합하여 이번에는 폴란드가 선정된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신규가입국에 대한 기업진출 여건의 비교는 의미있는 것임. 여기서는 美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응용하여 비교대상국의 진출여건을 생산조건, 수요조건, 연관/지원산업 및 정부/정책/전략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각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요소는 다음 표와 같이 선택했음. 대상 국가는 인구 5백만 이상인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하였음.

< EU 신규가입 4개국 진출 여건 비교 >

구 분	세부 요소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생산 조건	월평균임금(유로)	578	518	494	326
	노동생산성 (시간당 근로자 1인당 GDP,US\$)	7.11	8.31	6.90	5.25
	숙련노동력 확보 (설문)*	5.73	6.53	6.93	6.44
	고용주 사회보장세 부담율(%)	20.41	37.11	35.56	38.01
	외국인직접투자유입 (GDP대비, %)	3.25	4.70	8.61	10.48
수요 조건	인구(백만명)	38.7	10.2	10.3	5.4
	GDP(US\$ 10억)	189.3	65.8	69.5	23.7
	1인당 GDP(US\$)	4,904	6,455	6,814	4,386
	무역-GDP비율(%)	30.45	74.40	71.92	77.80
연관/지원 산업 및 인프라	도로 밀도 (km per sq km)	1.170	0.330	1.620	0.870
	철도 밀도 (km per sq km)	0.0643	0.0855	0.1195	0.0747
	생계비지수 (뉴욕=100)	74.60	66.70	66.70	63.50
	年사무실 임차료(US\$/sqm)	413	283	327	62
	인터넷 사용자(1000명당)	169.25	206.86	241.98	229.21
정부, 정책 및 전략	정부/정책 투명성 (설문)*	2.84	4.97	4.33	5.05
	관료주의 정도 (설문)**	1.622	3.636	2.605	1.932
	외국기업 차별 (설문)***	7.146	8.364	8.837	8.339
	법인세율 (%)	27	18	31	25
	세계화에 대한 태도(설문)*	3.573	4.529	5.953	5.559

(주 : * 높을수록 좋음, ** 낮은 점수는 관료주의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정도가 큼을 의미, *** 낮을수록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함을 의미)

- ‘생산조건’으로 보면, 4개국간에 뚜렷한 리더가 보이지 않지만, 슬로바키아의 부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번 현대차 유치를 통해 인구 540만의 이 나라는 ‘1인당 기준’ 유럽 제일의 자동차 생산국이 될 것으로 보임.
- ‘수요조건’을 보면, 폴란드가 인구로나 경제규모(GDP)로나 월등하므로, 시장지향형 투자진출을 노리는 기업에게 폴란드는 독보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 ‘연관/지원산업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체크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 체크는 발달된 도로, 철도망을 보유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지수도 상대적으로 양호함.
- ‘정부,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는 헝가리가 앞서고 있는데 정책 투명성이 높고 관료주의가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음.

(문의처 : 바르샤바무역관 김삼식 sk7192@kotra.or.kr)